



##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

엘리아의 예언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삼 년 반 동안 비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고자 아합과 신하들은 모든 물 근원과 시내(와디)를 찾아 헤맸습니다 (왕상 18:5). 그러나 그들이 정작 찾아야 할 것은 물보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렘 2:13).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엘리아를 내보내 오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아합에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엘리아의 대결은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K 부족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사는 그들은 지난 2002년에 신약성경이 완역되었지만 마음 놓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신약성경통독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까지 가려면, 비행기, 배, 버스로 3일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목적지 국가는 정치적인 소요로 인해 몹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 성경과 함께 읽는

##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4/16	4/17	4/18	4/19	4/20	4/21	4/22
왕상 1-2	왕상 3-5	왕상 6-7	왕상 8-9	왕상 10-11	왕상 12-14	왕상 15-16

70명이 등록했고, 그들은 이웃나라의 안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상황이 호전되었고, 그들은 두 번이나 국경을 통과해서 목적지 국가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시간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자기 이웃들을 만났는데, 서로 그리스도인(마시히)인 것을 처음 알기도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나흘 동안의 성경읽기 모임은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발각되거나 핍박 받을 염려 없이 마음 놓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K 부족어를 잘 읽는 사람들만 앞줄에 앉아 소리내어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음 줄에 있는 사람들도 낭독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마시히들은 성경읽기가 끝나도 인쇄한 성경을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으면서 미안해했습니다. 경찰에 발각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읽기와 찬양과 기도 등 나흘 동안의 일정을 다 마쳤을 때 그들은 담대해졌고 한 권의 책도 남김 없이 신약성경을 다 가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핍박이여 올 테면 와라!" 외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K 부족 교회는 바로 다음 신약성경읽기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나라 안에 외딴 산골에 있는 요양원을 택했습니다. 지난 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100명의 마시히가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난곳 방언 219호, 13~17쪽, 윤누가 선교사의 글에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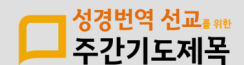
K 부족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갈망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적시기 위해 치른 대가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구약 성경도 자기 말로 번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 귀한 값을 치러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갈구하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셔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 Thirst for God's Word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With Elijah's prophecy, Northern Israel did not have rain for three and half years. They searched the whole kingdom to find "all the springs of water and all the wadis" (1Kings 18:5, NRSV) to cope with the severe drought. But they did not know it was not just water they had to find but God who is the real source of life-giving water (Jeremiah 2:13). That is why God sent out Elijah to meet with Obadiah and tell Ahab that what they needed was God Himself. This message is all about Elijah's confrontation with the 850 prophets of Baal and Asherah on Mt. Carmel.

Here are K people Christians who are really thirsty for God and His life-giving Word.

The K language group live in a Muslim dominant country. They were not able to read the Bible in public even after the whole New Testament translation was done in their language in 2002. Due to security issues, they decided to have a retreat for a complete reading of the New Testaments in a neighboring country. However, it would take three days by plane, train, and bus to get to the venue

Apr 16	Apr 17	Apr 18	Apr 19	Apr 20	Apr 21	Apr 22
1Ki 1-2	1Ki 3-5	1Ki 6-7	1Ki 8-9	1Ki 10-11	1Ki 12-14	1Ki 15-16

passing through two countries. There was also a nation-wide instability at the destination country. But amazingly, 70 people signed up for this event and they prayed hard for the stableness of that country.

Finally, the situation was settled enough so that they were able to travel. They passed through the two borders individually and met in the third country together. They then traveled again on buses for 15 hours to get to the meeting place where they had four days of Bible reading sessions. They even met with neighbors who they had not known were Christians (*Masihi*) because they could not be public about their beliefs. It was such a blessed time for them as they sang and praised, crying out prayers without worrying about being uncovered and persecuted.

In the beginning, only those who were good at reading the K language sat in the front line to read aloud so that others could follow with their eyes. But soon after, the people in the second row want-

ed to join in. Some *Masihi* were troubled and sad in the beginning because they thought they would not be able to carry the K New Testaments back into their country in the fear of being discovered by the local police. But at the end of the Bible reading, worship, and prayers, they became bold and all the copies were taken. Some even shouted, "Let the persecution come!" Of course, all the participants arrived back at their homes safely. The K church planned for another New Testaments reading and they convened at a retreat centre in a remote mountain area in their country. 100 *Masihi* who were not able to attend the last session came and read the Bible together.

(excerpted from Luke Yoon's story on the K people, pp. 13-17, *NonGotBangUn*, vol. 219)

We thank God for their thirst for His word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such a cost to water themselves with it! Let us pray for their continuous growth in His Word as they keep translating the Old Testaments in their language.



**Week 16 Prayer:** Dear Lord, thank you for the invaluable sacrifice you have made to make this Word alive among us! We thank for the forerunners who have translated the Word in our heart language. Let us resume this thirst and hunger for Your eternal-life-giving Word that we will enjoy joy and peace as we drink and eat it.